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 1960-1990년대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김 현 선*

I. 머리말	IV. 시기별 애국주의 내용
II. 애국주의 내용I: 군사·영웅주의	V. 맺음말
III. 애국주의 내용II: 반공·국가주의	

I. 머리말

무릇, 살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이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 이 도리를 알지 못하리요!...민영환은, 몸은 죽었을지언정 아주 죽은 것이 아니요,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기필코 도와 드릴 것입니다(민영환의 「국민에게 아뢰는 글」에서).

자기 민족 사회가 어떠한 위난과 비운에 처했든지, 자기의 동족이 못나고 잘 못하든지...그 민족을 건져 낼 구체적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이외다(안창호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에서).

지배 사상은 종종 일반 국민들에게 무의식적 형태로 내면화되어 행사되며 흔히

* 천안대 강사, 사회학

‘언어’의 형태로 조작되고 유포된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일차적으로는 지배이념의 표현인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집단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용하는 정치권력의 수단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상징과 언술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¹⁾으로 이용된다. 카시러(Ernst Cassirer)가 현대 정치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정하기 위해 언어의 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부러 착수한다고 단언한 것이나,²⁾ 에델만(Murray Edelman)이 성공적인 지도자는 신화와 대중적 신념을 강화하려는 특별한 언어장치를 사용한다³⁾고 언급한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언어(말)가 실제 정치적으로 활용된 예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다.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묻기 전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 보라’는 그의 말은, 한때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주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리로 인용되어 왔다. 또 ‘잘 살아 보세’, ‘신한국 창조’, ‘보통사람들의 시대’, ‘세계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슬로건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권위를 얻어내고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한 ‘말’의 정치의 일면을 엿보게 해준다.

이 글은, 언어가 대중의 참여와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경험적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지배 담론 가운데 특히 ‘애국주의’⁵⁾의 내용을 시대별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애국주의 서술에서 보여지는 내용상의 특징과 이것이 시기별로는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가 분석의 초점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애국주의(애국심) 개념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는

1) David Kertzer, *Rituals, Politics and Power*(Yale Univ. Press, 1988).

2) Ernst Cassirer, *The Myth of the State*(Yale Univ. Press, 1946), 『국가의 신화』(최명관 역)(서광사 1988).

3) Murray Edelman,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71).

4)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경험적인 분석으로는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31집(1997); 권혁범, 「반공주의의 회로관 읽기. 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당대비평』, 8호(1999); 김현선, 「‘현충일’ 추념사의 내용과 상징화 의미 분석: 1961-1979」, 『청계논총』, 2집(2000) 등이 있다

5) 이 글의 주요어인 patriotism을 우리말인 애국심, 애국주의와 의미상의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며 통칭해 애국주의로 표현한다.

것”⁶⁾으로 정의해 사용할 것이다. 스톡스(J. L. Stocks)는 애국심을 구성하는 요소로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의 이익을 위한 욕망, 조국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자신의 조국이 최고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조국의 이익(부)이 결국은 시민의 이익과 일치된다는 믿음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세 요소 가운데 조국애의 최고의 증명이자 검증으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한 세 번째 요소의 애국주의는 시민을 조국의 아들로, 정부의 노예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⁷⁾

애국주의의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전달매체의 하나인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주의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도덕’, ‘윤리 교육이 정치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⁸⁾ 국경교과서 가운데 ‘도덕’ ‘국민윤리’ 그리고 ‘국어’ 과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이다. 곧 박정희정권 기간에서 김영삼정권 시기 동안에 초·중·고등학교 ‘도덕’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주의에 관련한 부분을 검토했다.

이 시기는 교과과정별로 본다면 2차 교과과정에서 6차 교과 과정에 걸치는 기간이다. 주로 분석이 된 교과서는 국민학교·중학교 ‘도덕’(‘바른생활’), 고등학교 ‘국민윤리’이며, 이외에 보조적으로 국민학교 ‘국어’를 함께 분석했다. 국민학교 ‘도덕’, ‘국어’와 중학교 ‘도덕’은 2차에서 6차 교과과정기의 전기간에 해당되며,⁹⁾ 고등학교 ‘국민윤리’는 3차에서 6차 교과과정기의 기간에 해당된다.¹⁰⁾ 분석한 모

6) J. L. Stocks, *Patriotism and the Super-State* (London: The Swarthmore Press Ltd, 1920), p. 14.

7) *ibid.*, pp. 11 ~44.

8) 배석원,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형성과 구조」, 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한국「도덕·윤리」교육 백서』(한울, 2001); 홍윤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위의 책

9) 2차 교과과정기(1963-1973)에 ‘바른생활’이던 명칭이 3차 교과과정기(1973-1981)에 ‘도덕’으로 변경되었고 이 시기부터 도덕이 정식교과로 되었으며, 4차 교과과정기(1981-1987)에 다시 국민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도덕’이 없어지고 통합 교과서로 된 까닭에 4차 교과과정 이후의 시기는 3학년 이상만 분석되었다.

10) 이보다 앞서, 2차 교과과정기에 ‘사회’과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국민윤리’라는 명칭으로 독립되었고, 1969년 개정안에서 ‘국민윤리’가 ‘반공 및 국민윤리’로 개칭되었다. 정식으로 ‘국민윤리’가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수위 교과목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유신체제 이후이고 이 편제는 6차 교과과정기(1992-1998)까지 지속되었다(배석원, 앞의 논문, 홍윤기, 앞의 논문).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발행된 1970년대 이후 발행본을 분석했다.

든 학년의 교과서는 교과과정별로 1책, 학년별로는 2책 또는 1책이다. 단, ‘국민윤리’만 1974년 발행본, 1976년 수정 발행본 그리고 1979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행본 등 모두 3차 교과과정기에만 해당되는 3책이다.

<표 1> 교과과정별 분석 대상 교과서¹¹⁾

교과서	교과과정				누락(대체)	권수
	2차	3차	4차	5·6차		
국민학교:『도덕』(전학년)	6	6	4	4	2차/3학년(1차(62피냄))	40
:『국어』(3-6학년)	4	4	4	4		32
중 학교:『도덕』(전학년)	3	3	3	3	2차/2학년	14
고등학교:『윤리』(통권)		1	1	1		5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2장과 3 장에서는 애국주의 담론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위의 교과서 분석 결과, 애국심의 교육을 위해 동원된 담론은 크게 네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의 애국주의 담론을 네 개의 범주 즉 군사주의, 영웅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국가주의로 세분했다. 이들 네 가지 애국 담론의 내용을 2장과 3장에서 교과서에 서술된 표현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 장에서는 네 가지 담론의 빈도 변화에 기초해 애국주의 내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시대적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논문을 마칠 것이다.

11) 국민학교 ‘도덕’과 ‘국어’는 전 과정 학년마다 학기별로 간행되었으며, 중학교 ‘도덕’은 3차교과과정기에만 상·하로 간행되었고 그 외는 학년별 각 권으로 그리고 고등 ‘국민윤리’는 전체통권으로 발행되었다. 교과서 저자는 국민학교의 경우 전 과정 정부(문교부) 발행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79년 이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이다. 그리고 1980년대 초의 4차 교과과정기에 발행된 교과서는 3개 과목, 전 학년에서 1988년 혹은 1989년까지 간행되었고 1989년이나 1990년에 새로 간행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분석된 교과서는 2차 3차 4차 5·6차 교과과정기에 해당하는 4 회의 교과서이다

II. 애국주의 내용 I : 군사·영웅주의

지적인 것처럼,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 초·중·고등학교 ‘도덕’, ‘국민윤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애국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군사주의, 영웅주의, 반공주의, 국가주의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그러나 이 네 가지 하위요소는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 즉, 군사주의 경향은 반공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서술, 그리고 영웅중심적인 서술과 내용상 엮힌 채로 발견되는데, 분석의 편의상 각각 독립된 것으로 떼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특히 남성중심적 경향이 강한 군사·영웅주의적 서술을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사주의

국가방위의 수호자로 칭송되는 국군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진 군인들의 자기희생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지키는 용감하고 씩씩한 국군이 어린 이들의 미래의 꿈으로 제시되면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일깨우는 것이다.¹³⁾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분들의 덕택이야.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아버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튼튼히 자라서, 공산군을 무찌를 테어요.”(『바른생활』, 2-1, 1969)¹⁴⁾

12) 이 가운데 군사주의적, 남성중심적 경향이 애국주의 담론의 주류를 이루어왔음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John Bodnar, “Introduction: The Attractions of Patriotism,” John Bodnar(ed.), *Bonds of Affection* (Princeton Univ. Press, 1996); C. Elizabeth O’Leary, “Blood Brotherhood: The Racialization of Patriotism, 1865-1918,” *ibid.*. 이 두 가지 특징 외에 특히 네 번째의 반공주의가 우리나라 애국주의에서 독특한 것이다.

13) 물론, 애국주의의 실천으로 국가방위의 문제가 강조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단상황으로 인해 계속된 남북간의 대결로 국방의 문제가 한국 민족주의 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승숙,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한국」, 『당대비평』, 9호(1999). 실제 교과서에서도 국방의 의무가 애국심 발현의 주요한 행위로 강조되고 있다.

14) 인용문의 강조는 필자이며, 별도의 학년 표기가 없는 것은 국민학교이교 표기년도는 발행년도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남자라면 누구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나가야 하고, 또 군대 일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도 언제나 나라를 지킬 마음을 가져야 하지. 공산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말이야”...“저도 크면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렇지, 너도 빨리 커서 그런 일을 해야지”(『바른생활』, 2-2, 1970)

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에는 마을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향토 예비군이 조직 되어 자기의 직장을 지키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도덕』, 3-2, 1979)

남자들에 대한 국가방위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요구되는데, 하나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적 불안감이다.¹⁵⁾ 즉,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불안감은 국가방위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결과적으로 군인정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 남자 누구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되는 제일의 원인은 ‘공산군의 침략 이다 교과서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기회만 나면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흥계를 꾸미는”¹⁶⁾ 북한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 전 국민이 국가방위의 임무에 참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용감하고’ ‘씩씩한’ 국군에 대한 묘사는 “우리 국군 제일이야”¹⁷⁾라고 외치는 국군 제일주의로 귀결되고, 국군은 어린이들(남자)이 앞으로 되고 싶은 제일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군사주의적 주

의미한다.

15) 이러한 결과는 에델만이 신화적 형태를 분석해 내린 주장과 일치한다. 그는 정치신화를 내부적 긴장을 외재화하는 수단으로 설명하는데 신화는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즉, ‘작’으로서의 외집단의 정의와 이에 대한 구원자적 존재로서의 국가인데, 따라서 그의 논리에 의하면 내부와 외부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정당화 논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반이다.

Murray Edelman, *op.cit.*.

16)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3-2(1982), 110쪽.

17) 문교부, 『바른생활』(국민학교), 1-2(1964 처음, 1967 펴냄), 28쪽.

18) 위의 책;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3-1(1962).

장은 그들에 대한 성격묘사와 순교자적 구국행위라는 두 가지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즉, 국군은 교과서에서 친절하고 다정한 인물로 비유되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은 조국을 위해 개인의 목숨을 희생한 거룩한 행위로 예찬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인상이 담긴 예문이다.

그 후, 이 (불쌍한) 소년은 소대장을 비롯한 여러 병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해 지금은 그도 훌륭한 국군 병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선에 나가 있습니다.(『바른생활』, 4-2, 1969)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어디서나 부지런했으며, 언제 보아도 웃는 낮이었다. 비록 몸은 갠으나 그의 고귀한 정신은 아름다운 하늘의 꽃으로 우리겨레의 마음 속에 영원히 피어 있을 것이다.(『바른생활』, 6-2, 1972)

교과서에 묘사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불쌍한 소년을 보살펴주는 등 ‘고마운’ 분들이다. 그리고 예시된 인물들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형님’ 등과 같이 가까운 인척관계의 인물이다. 친절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친족관계의 인물로 그려지는 군인의 설정은, 자연스레 군인 아저씨에 대해 친밀감을 심어주면서 나아가 전쟁터에서 희생된 군인의 행동을 영웅시하는 데 사용된다. 바로 이 점이 군사주의 담론의 특징이기도 한데, 즉 그들의 죽음을 설명할 때는 항상 군인 개인의 선량함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숭고한 비장미, 거룩함을 배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강재구 소령’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중대장은 “빨리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수류탄 위에 몸을 덮쳤다. “앗! 중대장님!” 중대원들이 외치는 고함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수류탄은 터지고 말았다. 참으로 장렬한 죽음이었다. 자기 한 몸을 희생시켜 부하 사병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바른생활』, 6-1, 1971)

강재구 소령은 군인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애국자이다. 부하들을 구하기 위

해 자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의 일화는 본받아 마땅하며 꼭 실천해야 할 지표로 제시된다. ‘장렬하고’ ‘거룩하며’ ‘승고한’ 등의 수식어와 함께 그(들)에게 불멸을 제공함으로써 조국을 위해서는 앞다투어 “나라에 몸을 바칠 것을 서로 사양하지 않는”¹⁹⁾ 강재구 소령과 같은 자기 희생적 군인을 본보기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폭탄과 함께 날아간 용사’들의 죽음 뒤에는 “죽음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²⁰⁾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로 인해 생겨나는 엄숙한 비장미를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승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베트남으로 떠나는 신문 기자에게 “내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똑똑히 전해 주오”²¹⁾라고 전하는 노모의 말에서 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요컨대 군사담론의 특징은 남자들에 대한 군복무 요구와 희생의 요구를 ‘개인’ 그리고 ‘가족’의 의무의 문제로 돌리면서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무는 직접적으로 행동(봉사)과 관련되고 그 행동은 강제 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²²⁾ 교과서에서 이야기되는 군인들의 자발적인 국가방위의 실천과 국가에 대한 봉사는 자연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히 통제되고 지도되는 의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 영웅주의

이 절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영웅 이야기를 애국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²³⁾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위인은 “남을 위하고 민족 국가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19) 문교부, 『바른생활』(국민학교), 5-2(1966 처음, 1966 펴냄), 97쪽

20)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5-2(1974 처음, 1980 펴냄), 41쪽

21) 문교부, 『바른생활』(국민학교), 6-2(1966 처음, 1972 펴냄), 110쪽

22) J. L. Stocks, *op. cit.*.

23) 루이스에 따르면 영웅 이야기는, 집합 기억의 표현 주제로서 고대 시대부터 존재해 온 하나의 소재이다. 영웅 이야기는 그룹의 용기나 명예를 고양하는 기능을 하며, 대개의 고대 사람들은 구성원에게 충성을 지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웅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인’ 이야기 형태는 비단 원시 시대뿐 아니라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다른 매체나 메시지의 형태를 띠고 존재한다고 한다. Bernard Lewis, *History: Remembered, Recovered, Invented* (Princeton Univ. Press, 1975), pp. 43~45. 분석 결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위인전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초점이 모아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위인전이(특히 1960-1970년대에)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그 찬란한 자취를 남긴 사람이며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²⁴⁾은 참으로 위대하다. 제시되는 인물의 대다수는 ‘국난을 극복한 위인들’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즉, 장군이나 독립투사와 같이 구국을 위해 몸바친 애국적 인물이 대부분인 점과 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양상을 띠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다.

장군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을 여시오. 왕명을 받아가는 몸이니, 이렇게 지체가 되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요” 이 얼마나 거룩한 말이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곳으로 가는 예수를 생각했다.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이렇게 거룩한 분이다...“이 마지막 어려운 고비에 다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임금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 얼마나 참된 애국자냐!
(『바른생활』, 6-1, 1971)

이순신은 1960-1990년대 기간에 국민학교 ‘국어’ 책에서 총 5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위인이며 ‘도덕’ 교과서에서도 총 4 회로 단연 대표적인 위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²⁵⁾ 위인들을 직업별로 보면, 군인(장군)이 이순신, 온달, 강감찬, 최무선, 스님 장군(사명당) 등 모두 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의 등장 횟수가 사명당을 제외한 4명 모두 3회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지배적인 위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의 독립운동가는 모두 3 명인데 이들 독립투사들도 모두 3회 이상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선비(관료)가 황희, 조식, 조온, 안향 등 4명이며, 세종대왕, 주몽을 포함한 임금이 2명, 문익집, 김시습, 주시경, 한석봉, 김정호, 오성과 한음 등 문화 관련 인물이 6명 그리고 주부인 신사임당 1명 등이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타난 위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운’ 장군이나 독립투사 등 애국적 인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과학자나 문화인물 등은 소

24) 문교부, 중학교 『도덕』3(1965), 12-14 쪽

25) 1960-1990년대 ‘국어’ 책의 「전기」 부분에 등장하는 위인을 정리해 본 결과 모두 21명인데, 이 가운데 한석봉, 김정호, 안중근, 신사임당이 4회로 매 교과 과정마다 1회씩 등장하며, 유관순, 온달 장군, 강감찬, 세종대왕, 최무선, 윤봉길 등이 3회 등장한다.

수이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위인을 함께 고려하면 군인, 투사에 집중된 서술이 더욱 강조됨을 볼 수 있다.²⁶⁾ “우리의 민족주체성을 지키고 빛낸 수많은 선열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국난에 즈음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생명을 구한 을지문덕, 강감찬, 이름 없는 용사들이 그러한 분들이며 이들은 우리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쳤던 순국의 선열들”²⁷⁾이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도를 닦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은혜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²⁸⁾라고 외치며 구국에 앞장선 ‘스님장군’인 사명당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며 풍년가를 부르는 순박한 국민이지만, 일단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군인만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녀노소, 군관민의 구별 없이 한 뜻이 되어, 창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 나라를 지킨”,²⁹⁾ 소위 전국민의 군사화를 특징으로 하는 애국심 발휘는 교과서에서 가장 부각되는 전통의 하나이다.

그리고 성별로 볼 때는 남자가 19명이고 여자는 2명으로, 여자 2명은 유관순과 신사임당이다. 이 가운데 유관순은 위인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나라를 위해 싸운(숨진) 선열’의 경우에 해당하며, 평범한 여성인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전형적인 상으로 강조되고 있다.’³⁰⁾ 이와 같은 남성편향적인 위인상은 결과적으로 애국심 실천에서의 성차로 이어진다. 즉 경제발전과 국가방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성차별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경제발전에서의 역할 강조이다. 여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힘에 보탬이 되는 조력자로 그려진다. “조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여성의 힘과 노력을 알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요한 힘과 노력을 남성의 활동에 보탬으로써 남

26) 예를 들면 이순신, 송상현, 광재우(홍의장군), 유유, 홍사구, 을지문덕, 김유신, 김좌진, 강감찬, 장보고 등의 인물이 그러하다.

27)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3(하)(1979), 32 ~33 쪽

28)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5-1(1965 처음, 1966 펴냄), 123쪽.

29)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2(1982 처음, 1987 펴냄), 219 쪽

30) 신사임당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남편에 대한 내조, 그리고 아들에 대한 뒷바라지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문장, 글씨,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에 초점이 두어진다. 단적으로 제목에서조차 2차 3차 교과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울곡의 어머니’란 제목이었고 ‘신사임당’으로 이름이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은 4차 교과과정기 이후이다.

녀가 협동할 줄 알아야 하고, 현대의 남성은 여성을 함부로 남성을 위한 생활도구 처럼 보는 관념을 청산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근대적 가정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³¹⁾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협동의 개념은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힘을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것으로, 다시 말해 근대화의 도구적 수단의 필요성 차원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의 전략적 담론으로 ‘남녀 평등 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²⁾

다음으로 국가방위 임무에서 성차별적 실천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남성에게 요구하는 주요한 애국적 실천이 전투적으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상반되게, 여성의 애국적 실천은 아들의 무덤을 정성스레 다듬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³³⁾ 무덤의 꽃이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물을 주는 여인의 모습,³⁴⁾ 그리고 아들 넷을 전쟁터에 바치는 어머니³⁵⁾ 등으로 나타난다. 국가방위와 관련한 여성의 역할은 한결같이 아들을 조국에 바치고 그 아들을 정성스럽게 기념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거나 전쟁터의 군인들을 보살피는 누나(어머니)의 모습이다³⁶⁾

31) 문교부, 『국민윤리』(고등학교)(1971 처음, 1974 펴냄), 186 쪽

32) 남녀의 이분법적 인식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경우에도 남녀 및 전쟁과 관련한 이미지가 매우 이분법적으로, 즉 남성은 전사, 여성은 평화 혹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전제는 사회가 변화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오히려 재생산되어 오고 있다. J. Bethke Elshtain, “Introduction,” *Women and War*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5). 이외에도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글들을 통해 볼 때 전투적인 남성과 전통적인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등식은 전쟁동원, 그 후의 개발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정진성, 「현대일본의 모성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 2000); 황정미, 「발전국가와 모성: 1960-70년대 부녀정책을 중심으로」, 위의 책; 가와모토 아야,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위의 책; D. G. Faust, “Altars of Sacrifice: Confederate Women and the Narratives of War,”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6(1990).

33) 「自愛넉친 母情-어느덧 詩人이」, 『동아일보』, 1964년 6월 6일, 7면.

34) 「보수없는 國丁-어느 女人의 精誠」, 『동아일보』, 1969년 6월 6일, 3면.

35) 「아들넷을 護國祭壇에-保國勳章 받는 壯한 두 어머니」, 『동아일보』, 1971년 6월 5일 7면

36) “박여사는 지난 66년 10월 월남에가 음식점을 차려 돈을 벌었다. 박여사는 이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신정, 구정 추석이면 해마다 함박지에 냉면을 가득 담고 깍두기와 시루떡을 해가지고 정글과 늘지를 누비며 ‘베트공’ 온산지인 ‘꾸멍’ 고개 등 ‘맹호’들이 있는 곳엔 어디나 들어가 장병들을 위문했다. ‘맹호’의 사병들은 박여사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장교들은 누님이라고 불렀다.” 「勇士보살핀 ‘맹호의 어머니」, 『동아일보』, 1970년 6월 6일, 7면

결국 교과서에 나타난 위인은 강하고 전투적인 애국자적 남성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며 군인과 독립투사 이외의 인물들은 매우 적다. 여성은 신사임당으로 대별되는 현모양처의 모습이 이상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남녀의 이분법적 관념은 경제발전이나 국가방위와 같은 애국심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남성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호전적인 투사의 모습이, 여성은 남성의 힘에 보탬이 되는 조력자이거나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III. 애국주의 내용II: 반공·국가주의

1. 반공주의

1968년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에는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가 반공정신과 직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공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애국담론을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요소로 작동했다는 것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이 불안상황을 이용해 지배집단이 자기 정당성의 근거를 북한의 존재로부터 빌려왔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애국애족의 정신은 곧 투철한 반공정신에 입각해서만 그 뜻을 성취할 수 있으며,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반공정신”³⁷⁾으로 풀이된다.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승복아, 제비처럼 재갈거리던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너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커서 기어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이 못마땅해서 입을 찢고, 돌맹이로 내리쳐 죽이다니, 아..”(『바른생활』, 6-2, 1972)

37) 문교부, 『국민교육헌장독본』(1968), 150쪽.

“공산군은 모두 강도나 다름없다. 6.25때만 해도 공산군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못살게 굴었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도덕』, 3-1, 1962)

반공을 주장하는 제일의 소재는 6·25 전쟁경험이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인 6·25의 참상과 비극, 그리고 갖가지 만행을 피난 온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전선터에서 부상당한 아버지 등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보여주면서, 어린아이를 ‘돌멩이로 쳐죽이고’ ‘사람들을 강도처럼 못살게 구는’ 등 공산당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부각시킨다. 두 번째 자원은 북한 공산당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이다. 이처럼 악랄한 북한이 언제 또 남한을 쳐들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강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심리를 야기하고 이것은 자연스레 반공주의의 정당화 내지는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강력한 반공주의는 공산당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인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

“공산군의 말도 우리말과 같은가요?” “말은 같지만, 공산당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거짓말이나 나쁜 말만 한다. 공산당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는, 어머니가 빠져리께 겪었기 때문에 잘 안다” ...“ 그 마음 나쁜 늑대는 공산당과 똑같다!”(『바른생활』, 4-1, 1969)

희숙이가 그린 간첩은 손톱이 길고, 머리에는 뿔이 나있어서 꼭 도깨비 같았습니다. ...“간첩은 어떻게 생겼을까 말해봐요” 선생님 말씀에 “도깨비같이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희숙이의 그림은 간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린 것 같아요. 잘 그렸어요.”(『도덕』, 2-2, 1980)

위 예문에서 나타나는 ‘늑대’ ‘강도’ ‘도깨비’ ‘거짓말쟁이’ 같은 공산당에 대한 비유는 반공주의가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레 내면화되는 한 실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공산당을 ‘적’으로 단정하고 학생들이 그들을 사람이 아닌 늑대나 도깨비로 상상할 정도로 반공주의가 내면화된 반면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비참한 생활상을 강조하면서 ‘착하고’ ‘불쌍한’ 북한주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리고 이것이 반공주의를 의식(이념)의 차원에서 나아가 승공통일이라는 실천적인

차원으로 제시하는 근거이다. 즉, 공산당 밑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선량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반공정신에 기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모두 행복하게 잘 산다는데 왜 우리는 북한에 남아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말조차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사회, 모든 자유를 빼앗긴 사회, 그것이 공산 세계인 것입니다...“나도 남한으로 가고파!”(『바른생활』, 6-1, 1971)

물기는 양동이와 세탁비누, 그리고 흰 신문을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곳에는 연필 한자루, 못 한 개, 휴지 한 장이 다 아쉬운 형편입니다. 아아, 단 것이 먹고 싶어요. 그럼, 언니, 언니네만은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말고, 아예 북한에 오실 생각 마시고...(『바른생활』, 5-2, 1966)

실천적 차원에서 반공주의는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나쁜 공산당”³⁸⁾을 몰아내고, 생활필수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기아와 극도의 궁핍함에 허덕이는 ‘불쌍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으로 즉 승공통일로 귀결된다. 이처럼 반공주의에서 규정하는 적은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당’이며 일반 북한주민은 ‘구해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러한 ‘나쁜’ 공산당과 ‘불쌍한’ 주민이라는 이분법은, 마치 가족주의 국가관에서 ‘은혜로운’ 국가와 ‘보호받는’ 국민이라는 설정 아래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반공주의가 지탱되는 근본적인 논리구조이다. 즉, ‘착한 남한 전체와 북한주민을 노예처럼 혹사하고 있는 ‘악’한 공산당을 쳐부수기 위해 늘 투철한 반공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애국정신에 다름 아닌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 가장 중요시되는 애국의 요소로 간주된다.

결국 공식적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승공이 아니라 아예 공산주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반공정신”³⁹⁾이고, 반공정신의 실천이 곧 애국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 하고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⁴⁰⁾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유민주국가’와 ‘통일’의 국가적 목표는 반

38)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3-2(1982), 110쪽.

39) 문교부, 『국민교육헌장 독본』 150 쪽

40) 위의 책, 150쪽

공정신에 입각한 애국정신을 밑받침으로 해야만 실현이 가능한 지표로 제시된다.

2.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크게 국가관과 국가 상징물의 두 요소를 통해 관찰된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주의적 사고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가족주의 국가관이다.⁴¹⁾ 가족주의 국가관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효도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나의 어버이로부터 태어난 것이 필연적인 운명이고, 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듯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이다...우리 나라는 곧 내 몸의 연장이요,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국민은 곧 나의 가족이요, 국토는 곧 나의 집인 셈이다.(중학교, 『도덕』, 2(하), 1979)

나라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라와 나는 한 몸과 같은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애국심의 근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내 어버이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도덕』, 6-1, 1979)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원리가 그대로 확장된 것에 다른 아닌 운명론적 국가 개념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떨러야 떨 수 없는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와 등치된다. 따라서 ‘몸’의 확대로서의 ‘우리의 몸’⁴²⁾이라는 온정주의적 나라 개념에

41)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민족)개념은 전형적인 그리고 매우 강력한 근원주의적(primordial) 입장에 해당한다. Paul C. Stern, “Why do People Sacrifice for Their Nations?,” John L. Comaroff & Paul C. Stern(eds.), *Perspectives on Nationalism and War*(Gordon and Breach Publishers, 1995).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를 “혈연으로 맺어진 큰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도덕』(중학교), 3(1990), 176쪽. 이러한 논리가 제시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가 일민족 단일 언어, 동일한 역사적 경험 등의 多동질성으로 인해 국민이 국가와 동일시하는 연결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42)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2(하)(1979 처음, 1979 펴냄), 28 쪽

서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효도’로 보답하듯이 국민이 국가(대통령)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귀결된다.

가족주의 국가관에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두 가지 맥락에서 즉,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개념과 국가와 개인은 운명공동체라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국가의 역할이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은혜로운 자이며, 국가는 우리에게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어릴 때에는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⁴³⁾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는 ‘헌신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제시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자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를 내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⁴⁴⁾ 것이라는 이와 같은 논리는, 국민이 지도자에 복종하고 희생한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치신화의 하나의 주제라는 지적⁴⁵⁾과 상통한다.

가족주의 국가관에서 애국심의 발휘를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국가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⁴⁶⁾이기 때문이라는 국가와 나의 운명론적 관계 설정이다. 국가가 발전해야 나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국가가 없다면 개인은 삶의 터전을 잃어, 결국은 “애국을 하려고 해도 나라가 없고, 앞세우고 나갈 국기도 없으며, 힘차게 부를 국기도 없어 결국 설 땅이 없어지는”⁴⁷⁾ 베트남 난민과 같은 비참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요구하는 국민상은 케네디의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협동과 봉사, 희생정신을 갖춘 이타주의적 인간형이다.⁴⁸⁾ “제일 강한 나라, 제일 부자 나라, 제일

43)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1(1982 처음, 1987 펴냄), 145~146쪽

44)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윤리』(고등학교)(1979), 144쪽

45) Murray Edelman, *op. cit.*

46) 문교부, 『국민윤리』(고등학교)(1971 처음, 1974 펴냄), 188~195쪽

47)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4-1(1973 처음, 1979 펴냄), 127~132쪽.

48) ‘봉사’와 ‘희생’의 주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예시된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들은 유관순, 윤봉길, 김구, 강재구, 안중근 등으로 “남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⁴⁹⁾를 애쓰는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인간형 달리 말해, “나라와 겨레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려는 생각이 결코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자각에서 우러나서”⁵⁰⁾ 행동하는 인간형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국가개념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국가상징물의 신성화이다. 대표적인 국가상징은 국기, 國歌, 국가원수이고 상징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신성시이다. 이 가운데 신성한 국기를 상징하기 위해 종종 등장하는 소재는 국기, 태극기이다

비가 오면 국기가 젖지 않도록 거두어들입니다.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접어서 상자에 넣어 소중하게 간수합니다...국기가 찢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얼른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어둡니다...우리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듯이 우리 국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한답니다.(『바른생활』, 2-1, 1969)

어려운 속에서도 70여 년 동안이나 지키고 간직해 온 이 국기이기에 태환이네 집에서는 이 국기를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답니다...태환이네 이 국기를 우러러보며 혼자 마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국기를 지켜야지.’(『바른생활』, 4-1, 1969)

국기는 우리나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하다. 그러기에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며, ‘비에 젖지도’ ‘땅에 떨어뜨려 흙이 묻지도 않게’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애국하는 마음이며, ‘국기를 지키고자’하는 결심은 곧 나라를 위하는 실천이다. 이처럼 민족단위를 상징하면서 숭배되는 국기는 그러나 19세기말인 1890년대 전까지는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⁵¹⁾ 그 전까지 국기는 단지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 즉 지역적인 상징물로 상징화되었는데, 1890년대 이후에 민족의 단위에서 숭배되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 사람들이다. 문교부, 『중학도의』, 1(1967), 117 쪽

49)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3-2(1989), 98~102 쪽

50)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2(1982 처음, 1987 펴냄), 218 쪽

51) Stuart McConnell, “Reading the Flag: A Reconsideration of the Patriotic Cults of the 1890s,” John Bodnar (ed.), *Bonds of Affection*(Princeton Univ. Press, 1996).

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국기는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고 의례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국가적 상징물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국기는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 거의 ‘신화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국가주의적 사고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IV. 시기별 애국주의 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1960-1990년대 교과서에 나타난 네 요소의 애국주의 담론은 다루어진 분량이나 강조되는 내용에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 장에서는 네 요소의 변화양상을 토대로 시기별 애국주의의 특징을 사회·정치적 맥락과 연결해 정리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국민학교 ‘도덕’(‘바른생활’) 교과서를 중심으로 애국주의 내용의 빈도를 시기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첫째, 1960년대는 군사·반공주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애국주의가 매우 짙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는 1970년대와 함께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 비해 애국심의 주장이 매우 강조된 시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1960년대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지도하는 방식도 직접적이면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가장 ‘폭력적’으로 요구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군사주의 서술을 보면, ‘군인’을 소재로 한 단원이 국민학교 전 학년의 ‘도덕’ 교과서에 매 학기 빠짐없이 등장하며 내용은 한마디로 ‘군인에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군사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공담론은 교과서 단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짐승같은 공산간첩’, ‘공산괴수’)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일깨우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양적인 면에서 보나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나 이 시기는 반공주의 색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반공담론이 그 아픔이 채 지워지지 않은 전쟁을 주된 이야기 소재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 시기는 과거의 사건을 애국심의 호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시기 국가주의 담론은 유달리 태극기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학교 전 학년의 ‘도덕’ 교과서에 ‘태극기’ 혹은 ‘국기’를 소재로 한 단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림1> 애국주의 담론의 시기별 변화

1970년대 교과서에는 4학년과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태극기를 다룬 단원이 보인다. 대표적인 국가상징물인 태극기를 소재로 해 애국심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이 두 시기에 두드러졌던 것이다. 실제 198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는 모든 학년에서 태극기 혹은 국기가 제목으로 등장하는 항목은 완전히 사라진다. 즉, 태극기의 신성시를 통해 나라에 대한 경외감을 자극하고 그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경향은 1970년대까지 보이는 현상이며,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상징물의 절대적 신성시를 통해 애국심을 지도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흔히 국가상징물이 만들어지고 강조되는 것은 민족국가 형성과 시기를 같이 하며 특히 초기에 국가상징물이 민족단위의 통합과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이 시기 교과서에는 혈연과 운명의 기계적 연대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국가관이 이후의 시기에 비해 매우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태극기를 신성시하는 작업과 함께 민족적 단일성과 정체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 시기인 1970년대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요소의 애국주의가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림에서 군사담론과 반공담론은 감소했고 영웅서술과 국가주의 담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

년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영웅중심 서술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로 위인전이 1960년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 애국담론은 앞의 시기와 비교해 양적인 증감 외에 각 담론의 내용상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발견하기 힘들다. 즉,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1960년대의 애국담론의 연장선에서 그 내용이 확장되고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의 주요 특징인 영웅중심 서술이 교과서에 대량 삽입된 것은 이 시기 교육의 특징인 소위 “국적있는 교육을 내걸고 국사, 충효 교육을 강조했다”⁵²⁾ 당시의 교육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³⁾ 영웅 이야기를 통해 충성심을 고취하려고 한 것은 1970년대의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과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삼엄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불안정한 정치권력의 합법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의 징표로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군사담론이다. 이 시기에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군인관련 서술이 반공주의와 혼재된 채 강조되었다. 1960년대의 군사담론이 대부분 전쟁용사들에 초점이 두어졌다면, 1970년대는 근본적으로는 1960년대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향토예비군, 민방위훈련의 내용이 새로 첨가되면서 그 창설과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글들이 등장한다. 1960년대 군사담론이 북한을 염두에 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방위의 문제와 연관된다면, 1970년대는 전쟁뿐 아니라 간첩을 비롯한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 하는 문제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국가방위화가 내용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결된 시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시기도 그러하지만 특히 정치적 의도가 교과서에 강하게 드러난 시기이다.

1960-1970년대에 매우 돋보이는 군사·반공담론은 표현에서 적대적이고 노골적

5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65~177쪽.

53) 그리고 이 시기의 영웅 이야기가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장군’, ‘군안’에 유난히 집중되어 있음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 일치한다. 그는 유달리 신라시대의 화랑정신과 이순신 등을 과거의 훌륭한 애국자의 모범으로 강조했다.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갈 길』(지문각, 1962); 『민족의 저력』(광명출판사, 1971); 『민족중흥의 길』(광명출판사, 1978). 따라서 이러한 영웅담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 및 대통령 자신의 출신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인 용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의 정치이념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과장된 채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학습될 수 있었던 데는 외부적으로는 당시의 세계적 냉전질서와 분단이라는 ‘위협적인’ 두 변수, 그리고 독재정권이 라는 국내적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아울러 더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강력하게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이 당시의 애국주의는 국가담론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담론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외부상황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기라고 하겠다.

세 번째 시기인 1980년대의 교과서에는 군사·영웅주의 관련 단원이 거의 삭제되었다. 이 시기의 애국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반공주의이다. 1970년대까지 등장했던 영웅중심 서술과 군사주의담론은 1980년대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⁵⁴⁾ 국가담론은 1970년대와 거의 변동 없이 그리고 반공담론은 대폭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빈도면에서 수위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국가담론을 제외하고 모두 현격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1980년대 애국주의담론은 과거의 그것과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1980년대 애국담론은 1970년대까지 교과서의 상당 지면을 할애했던 반공주의가 현격하게 감소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감소 외에 내용상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원이 절반 이상 사라졌지만 이전 교과서에 있던 단원이 별다른 내용과 제목의 수정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분량이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의 애국담론이며 내용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용어와 원색적인 표현으로 일관된 점에서 반공주의가 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당시 정권 또한 군사정권의 연장이었고 반공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한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반공주의 자체가 완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애국주의 내용에서 반공담론이 갖는 ‘실제적인’ 변화는 포착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가주의담론은 분량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내용상의 변화가 보

54) 1980년대 초에 간행된 이 시기 교과서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상당 지면을 차지하던 군사주의담론이 5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나라 위해 바친 몸」만 남고 모두 삭제되었고, 영웅주의담론도 ‘송상현’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전쟁무용담을 소재로 한 「나라 위해 바친 몸」마저 삭제되면서 군사주의담론이 애국적 내용의 요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다. 즉, 이 시기에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 등장해 온 경제발전에 관한 주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거둔 경제성장의 성과를 예시하면서 애국주의를 실질적인 경제번영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국가담론의 내용이 국가방위 혹은 국가상징물을 비유로 하는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을 강조했다면, 그리하여 애국자의 모범은 강재구 소령으로 대표되는 ‘군인’이었다면, 1980년대의 애국자에 대한 묘사는 기술개발, 경제발전에 뛰어들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산업일꾼으로 변모했다. 스톡스가 애국심의 두 번째 요소로 지적한 국가의 이익(발전)을 위한 노력이 애국심의 주된 실천적 행위로 주장된 것이다.

이 시기에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경제발전을 소재로 한 애국담론은 국가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이전의 박정희정권과 마찬가지로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정권으로 출범했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 자기 정당성 마련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 오히려 경제적 방법을 통한 정치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데 주력했고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시기이다.⁵⁵⁾ 따라서 근대화를 정치적인 구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박정희정권보다 오히려 교과서를 통해 볼 때 전두환정권 시기에 경제발전 관련 소재가 애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1960-1970년대에 내세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그것의 실제적인 효과인 경제적 ‘성공’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와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 정권의 결과물을 빌어 자기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역으로 당시 정권이 독자적인 정당성 창출을 마련하는 데 취약했음을 반증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시기인 1990년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처럼 1980년대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반공담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시기는 오로지 국가주의담론만이 애국주의 구성요소로 남는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되던 반공사상은 1990년대 교과서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로써, 애국주의의 중심담론이 1980년대까지의 반공주의에서 1990년대에는

55) 김동노, 「국가의 정당성 결여와 생활 세계의 왜곡」, 『현상과 인식』, 1997년 봄호, 74~79쪽

문화, 과학, 경제발전과 같은 ‘나라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호소하는 국가발전주의 논리로 이동한다.

이 시기의 획기적인 변화는 반공담론이 소멸하고 북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⁵⁶⁾ 승공통일에서 평화통일로 입장이 바뀐 점,⁵⁷⁾ 적에서 한민족, 한겨레로 북한에 대한 시각이 교정된 것⁵⁸⁾ 등이 그러하다. 이 시기 북한에 대한 항목은 전 학년 매 학기 ‘평화통일’의 제목이 들어간 단원 외에 특별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성된 단원은 없다. 1980년대까지 반공담론의 주요 소재이던 6·25전쟁의 실상도 매우 간략히 축소되어 서술되었고, 북한 공산군에 대한 묘사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적대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반공주의 사상의 특징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원색적인 비판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반공주의 이념은 적어도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분석만으로 볼 때 1990년대에는 더 이상 반공주의가 공식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이고 평화스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공주의 사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반공주의가 애국심을 지도하는 목적에서 그 기능적인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반공주의 연구에 따르면, ‘교련’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반공사상이 질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반공사상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반공표어는 여전히 1990년대 사회에서도 발행 유포되기 때문이다.⁵⁹⁾ 여하튼, 1990년대는 애국심을

56)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6-1(1990), 137쪽.

57)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5-1(1990).

58)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4-2(1994).

59) 권혁범, 앞의 논문. 그러므로 ‘도덕’ 교과서에서 ‘반공주의적’ 애국의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해석되어서는 안되겠다.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반공의 내용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애국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반공정신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권혁범은 반공주의가 다른 외피를 쓰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비록 반공담론이 사라지고 “세계 냉전질서가 붕괴되었음에도 분단국가는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지적처럼 분단체제가 역으로 남한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한 구실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김동춘,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당대, 2000), 130~132쪽.

요구하는 공식담론으로 반공주의가 그 기능을 잃고 ‘나라의 소중함’⁶⁰⁾을 일깨우면서 국가 중심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이된다.⁶¹⁾

다른 세 요소의 애국담론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국가담론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등장한 국가발전과 번영에 관련된 것들로 채워지고 있어 1980년대와 내용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항목이 첨가되고 증대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주의가 이 시기에 강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애국적 실천에서도 국가방위, 반공정신보다는 경제발전과 과학·문화발전 그리고 평화통일이 강조된다.⁶²⁾ 이로써 1980년대부터 국가주의담론의 주요 내용이던 나라의 발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집단지향적 사고와 평화통일에 대한 강조가 1990년대에 와서 더욱 심화되면서 이 시기 애국담론은 경제발전주의 논리를 내세운 국가주의가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결국, 1990년대는 1980년대까지의 애국주의 내용과 괴리감을 보이면서 시기적 전환점을 이룬다. 경제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애국주의 내용의 변화는 김영삼정권 시기에 내세운 국가주의적 전략과 맞물린 결과이다. 이 시기에는 박정희식 개발전략의 새로운 모습으로 즉 “반공과 발전에서 반공보다는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⁶³⁾ 내세우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분석에서 보이는 이 시기 애국주의의 특징은 반공 대신 세계화시대의 경제경쟁력을 새로이 정치담론으로 채택한 당시 정권의 정치적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요컨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애국주의담론이 쇠퇴하고 애국심을 요구하는

60)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4-1(1994)).

61) 이러한 결과는 남한의 사회구조 변동과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붕괴 등의 국내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과거와 같이 민감한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와 함께 또한 이제는 국민들이 ‘빨갱이’의 공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반공사상이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고 지배정당의 권위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는 그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62) 이러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인상의 변화이다.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 이 시기에는 점차 장군(군인), 충신 등의 인물이 적어지고 문화발전과 관련된 인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위인은 이순신, 한석봉, 김정호, 안중근, 신사임당, 유관순, 온달장군, 윤봉길, 황희 정승, 조식, 김시습, 주몽, 주시경 등 13 인으로 이 가운데 조식, 김시습, 주몽, 주시경 등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며 대신 1980년대까지 등장했던 강감찬, 최무선, 조은 등 소위 대표적인 ‘과거영웅’ 몇몇은 완전히 사라졌다.

63)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64~173 쪽

방식이 세련되고 간접적인 비유로 변했다. 과거의 군사, 영웅, 반공 담론 모두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자기희생을 애국심의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표현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과 같다는 논리 그리고 국가의 틀 안에서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개인의 봉사를 요구하는 식의 전체주의 담론은⁶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이전 시기처럼 ‘운명’이나 ‘혈연’과 같은 원초적 개념에 기초해 국가는 아버지이고 국민은 자식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역사적 구성물로 국가형성을 설명하는 객관성도 보이지만,⁶⁵⁾ 보호자로서의 국가와 수혜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가족주의적 논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사고는 동일하다. 즉, 개인의 발전보다는 나라의 발전을 강조하는 애국주의가 1990년대에 와서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집단지향적 사고를 주장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1960-1990년대 애국주의 내용의 변화를 대표적인 애국자와 애국적 실천의 항목으로 매우 간략히 도식화해 보았다.

<표 2> 애국주의 내용의 강조시기와 예

내용 \ 예시	애국자	애국적 실천	강조시기			
			1960	1970	1980	1990
군사주의	강재구	국가방위				
영웅주의	이순신	국난극복				
반공주의	이승복	승공통일				
국가주의	유관순	독립·번영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애국주의 담론 즉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요구하는 방법과 핵심적인 내용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다. 1970년대까지는 영웅중심 서술을 핵심으로 한 군사주의 정신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반공주의와 밀접히 관련된 채 애국심의 주된 실천으로 제시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반공정신의

64) 문교부, 『도덕』(국민학교, 6-1(1990)).

65)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중학교, 1(1990), 155~158쪽.

무장과 경제발전에 관한 노력으로 강조점이 이동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반공주의마저도 사라지고 나라의 경제번영이 주요한 애국적 행위로 강조되고, 전반적으로 애국심을 요구하는 강도와 표현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약화된다. 즉, 1960년대 이후 애국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1960-1970년대의 군사주의와 반공주의에서 1980년대의 반공주의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주의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도덕’ ‘국민윤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서술된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 이후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주의를 군사·영웅·국가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의 모두 네 개의 하위 요소로 분류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네 가지 애국담론의 빈도변화를 기준으로 시대별로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주의의 변화양상을 고찰했다.

1960-1990년대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주의 담론의 내용은 군사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이며 영웅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애국심의 주된 실천으로는 국가방위와 경제발전, 통일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가부장제적 국가관과 북한의 존재가 그것이다. 국가는 은혜로운 아버지이고 국민은 보호받는 자식들이라는 가부장제적 국가관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충성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 체제의 안전망에 적신호를 일으키는 존재이자, 그렇기 때문에 지배권력의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불안감을 이용해 내부적 결속을 호소할 수 있는 외부적 동인이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늘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고, 곧 국가의 존립과 곧바로 등치되는 애국심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애국주의의 내용은 시대별로 주장되는 요소가 다르다. 애국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1960-1970년대의 군사주의와 반공주의에서 1980년대의 반공주

의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발전 담론으로 그 초점이 변화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군사·영웅·국가·반공주의가 강조되었다. 1960년대에는 군사·반공주의 내용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영웅서술을 수단으로 한 애국심의 강조가 매우 두드러졌다. 이 두 시기에는 강력한 반공정신의 무장 그리고 승공통일이 애국심 실천의 주요 방법으로 강조되었다.

반면, 1980년대에는 군사·영웅담론은 사라지고 국가·반공담론만이 애국주의의 주장에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반공담론이 양적으로 현저히 감소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이전 시기와 동일하며 경제발전이 애국심의 실천으로 주장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국가주의를 제외한 세 가지 애국담론이 사라졌다. 경제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주의 논리가 우세해진 반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매우 객관화되고 완화되었다. 요컨대, 일련의 애국주의 변화 양상에서 1980년대가 양적인 변화의 한 지점이라면 1990년대는 내용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교과서

문교부, 『바른생활』, 『도덕』, 『국어』

_____, 『도덕』

_____, 『국민윤리』

한국교육개발원, 『도덕』

_____, 『국민윤리』

논문 및 저서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31집 (1997).

권혁범, 「반공주의의 회로판 읽기-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당대비평』, 8호 (1999).

김동노, 「국가의 정당성 결여와 생활 세계의 왜곡」, 『현상과 인식』, 1997년 봄호

- 김동춘,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서울 당대 2000.
-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현선, 「‘현충일’ 추념사의 내용과 상징화 의미 분석 1961-1979」, 『청계논총』 2 권(2000).
- 문승숙,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한국」, 『당대비평』, 9호(1999)
- 문교부, 『국민교육헌장장독본』, 1968.
-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갈 길』, 서울: 지문각, 1962.
- _____, 『민족의 저력』, 서울: 광명출판사, 1971.
- _____, 『민족중흥의 길』, 서울: 광명출판사, 1978.
- 배석원,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형성과 구조」, 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한국·도덕·윤리 교육 백서』, 서울: 한울 2001.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진성, 「현대일본의 모성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나남 2000
- 홍윤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전국철학교육자연대 회의, 『한국·도덕·윤리 교육 백서』, 한울 2001
- 황정미, 「발전국가와 모성: 1960-70년대 부녀정책을 중심으로」,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나남 2000.
- 가와모토 아야,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나남 2000
- Bodnar, John, “Introduction: The Attractions of Patriotism,” John Bodnar(ed.), *Bonds of Affection: Americans Define Their Patriot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6.
- Cassirer, Emst, *The Myth of the State*, 『국가의 신화』, 최명관 역 서울 서광사 1988.
- Edelman, Murray,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71.
- Elshtain, J. Bethke, *Women and War*,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5.
- Faust, Drew Gilpin, “Altars of Sacrifice: Confederate Women and the Narratives of War,”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6(March 1990)
- Lewis, Bernard, *History: Remembered, Recovered, Invente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5.
- McConnell, Stuart, “Reading the Flag: A Reconsideration of the Patriotic Cults of the 1890s,” John Bodnar(ed.), *Bonds of Affection: Americans Define Their Patriot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6.
- Stem, Paul C., “Why do People Sacrifice for Their Nations?,” John L. Comaroff & P. C.

Stern(eds.), *Perspectives on Nationalism and War*, Gordon and Breach Publishers, 1995.

Stocks, J. L., *Patriotism and the Super-State*, London: The Swarthmore Press Ltd, 1920.

주요어

애국주의, 군사주의, 영웅주의, 반공주의, 국가주의, 교과서, 도덕, 바른생활, 국민윤리